

정읍시, 중소기업 시설개선비용 지원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23개 업체에 3억4000만원

정읍시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정읍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 시설 정비와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로 환경 개선과 복지 편의 시설개선 등을 지원해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먼저 시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종업원 수 20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 기숙사와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등 개·보수를 지원해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3억4000만원을 편성해 총사업비 중 보조 60%, 자부담 40%의 분담 비율로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업체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 편의 개선사업에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20일부터 2월4일까지 희망 업체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한 23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지역 내 30개 업체를 선정해 조명, 바닥, 대기 배출시설, 화장실 공사 등 4억2400만원을 지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익산시 친환경 생태특화 유천도서관 완공

익산지역 유일의 생태특화도서관인 유천도서관이 완공됐다.

유천생태습지공원을 품은 시립 유천도서관은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82억원을 들여 총면적 2202㎡,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지상 1층에는 통합안내데스크·어린이 자료실, 지상 2~3층에는 종합자료실·생태자료 및 테마 자료 전시공간·보존서고·사무실 등이 마련됐다.

지상 4층에는 다목적실·문화 교실 등이 있으며 옥상에는 하늘마당(생태학습장), 독서 데크 등을 갖췄다.

특히 유천도서관은 녹색건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 에너지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건축물로 인근에 있는 유천생태습지공원과 연계해 생태환경 특화도서관으로 조성됐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전기안전교육원 기공식. 2022년 02월25일(금) -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전기안전교육원 기공식. 지난 25일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신축부지에서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 윤준병 국회의원, 유진섭 정읍시장, 황윤길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 기공식이 열렸다. 완공 목표는 2023년 11월이다.

<정읍시 제공>

남원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

남원시가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남원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배달음식 등 일회용품 사용량 급증에 따라 낭비되는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남원시, 용기내요! 그린포인트제'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음식점에서 음료·음식을 포장할 때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텀블러, 유리용기, 냄비 등)을 사용하고 이를 포인트로 적립해 인센티브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캠페인 참여방법은 음식점에서 포장 시 다회용기를 사용한 인증 사진을 탄소중립 SNS(인스타그램) 업로드, 환경과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중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순창군, '발효춘부 육성'...음식관광 창업 지원

외식분야 창업팀 모집

창업교육·상품개발비 등 지원



순창발효테마파크 조감도.

(재)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이 발효테마파크 특화음식을 개발하는 창업 실험의 장으로써 관광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음식관광 창업보육 프로그램인 '발효춘부 육성 사업'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모집대상은 외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기 창업자로,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순창군 내 외식업체는 선발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창업팀은 다음달 10일까지 10팀 내외로 모집하고, 참여팀들은 발효테마파크 내에서 4개월간의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창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외식 분야 창업이 특강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고 이후 시장조사와 레시피 개발, 현장 테스트 등 프로젝트 기반의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식 분야에 특화된 창업가를 육성해 나간다.

특히 사업화 지원 단계에서는 레시피 개발이나

마케팅 비용을 팀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문가 컨설팅과 총상금 600만 원의 경연대회 형식으로 음식 품평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프로그램 후속지원으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까지 참여한 팀에 한해 발효테마파크 내에 팝업스토어 참여 기회가 제공되며 식품 영업신고를 한 기창업팀은 시범판매, 예비창업팀은 이벤트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김재건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원장은 "순창의 관광 랜드마크로서 발효테마파크가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음식 개발이 필수적이며, 음식을 통해 순창의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판소리박물관, ICT 접목 새 콘텐츠 증강현실 전시물 보고 AI와 대화 나눈다

고창 판소리박물관이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등 최첨단 ICT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고창군의 스마트판소리박물관 구축사업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됐다.

'인공지능 판소리 큐레이션 AR 전시관람 시스템'이 판소리박물관이 자체 개발 중인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중이다.

모바일 앱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AR) 체험 ▲전시해설 ▲판소리사실 영인본 검색 ▲판소리 고음반 음원 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람객들은 앱을 통해 박물관 전시를 증강현실로 체험하고 전시해설과 판소리를 스마트 기기로 들을 수 있다.

증강현실(AR) 체험에서는 판소리박물관 전시실에 동리 신재효선생이 등장해 인공지능 대화를 통해 박물관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판소리사실 영인본 검색은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발간해 오고 있는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 판소리 사실 영인본 6바탕 27권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판소리 고음반 음원 서비스는 박물관에 소장된 고음반의 음원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즐겨볼 수 있도록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판소리 증흥을 위한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판소리 박물관을 즐겨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전시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군산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 5년간 1476여억원 투입 친환경·첨단 산단으로 변신

군산시가 노후화된 군산국가산업단지를 친환경·첨단·휴먼뉴딜의 스마트그린산단으로 구축한다.

군산시와 전북도는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군산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단'을 출범했다.

7명의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사업단은 낡고 오래된 경쟁력이 떨어진 군산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그린·휴먼뉴딜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각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한다.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에는 올해부터 5년간 1476여억원이 투입되며, 통합관제센터와 물류 플랫폼 구축,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경쟁력이 떨어진 노후산단이 첨단 근로·정주여건을 갖추고 인프라를 확충하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